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2019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공동체 12월 10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는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 하기에 앞서 점검단을 구성, 현장 실태조사를 펼쳤다.(사진은 고향 만월공동체 점검모습)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받는 공동체는 12월 10일 열리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를 오는 12월 10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8년 확정된 선진공동체(68개소) 중 선진등급으로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실적 이 없는 공동체(45개)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공동체

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별사업비 신청사업 계획의 타당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원대상 후보공동체를 선정한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는 선진등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총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회의

#### 12월 11일 개최 ... 금년도 활동실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한국수산업회는 오는 12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데이지홀에서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위원(15명) 및 한국수산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컨설턴트 활동보고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담당 컨설턴트 들은 그동안 추진한 공동체 컨설팅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효율적인 컨설팅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전북 익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내 저소득층 위해 성금 기탁

전북 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윤승례)는 11월 27일 익산시를 방문하여 저소득층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윤승례 위원장은 이날 "지역사회에 얻은 이익을 겨울철 어려운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익산시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2018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 12월 14일 개최 ... 올해 분쟁조정 추진 및 운영방안 협의

한국수산업회는 오는 12월 14일 서울역 LW컨벤션 회의실에서 자율조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 총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열린 자

율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2018년 신규과제 4건과 2017년 미해결과제 1건 등 총 5건의 분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자율조정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 제3회 통영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성료

자율관리어업 통영시 연합회(회장 이기만)는 지난 10월 24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 통영생활체육공원에서 통영시 관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및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통영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업인 27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가 주최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모습.

한편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는 한마음대회에 앞서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해안지선에서 관내 공동체 어업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작업을 펼쳤다.

#### 제3회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한마음대회 포상자 명단

□경상남도지사 표창(1명) △통영양지패류양식공동체 송광주 □통영시장 표창(4명) △통영소형외줄낙시공동체 이상동 △중화공동체 강동철 △통영연안통발공동체 강철도 △육지연화공동체 이영권 □국회의원 표창(3명) △용남수산업청년회공동체 김영완 △원항공동체 이성국 △감성동자망공

동체 지광실 □경남도의회 의장 표창(5명) △평림공동체 박석봉 △통영연안계통발공동체 최종철 △통영문어단지공동체 김광수 △상노대공동체 조춘제 △내항공동체 이상봉 □통영시의회 의장상(2명) △나잠동우회공동체 정성준 △육동산내공동체 이종대 □통영해양경찰서장 표창(3명) △경남연안선망공동체 이기삼 △통영연안자망공동체 조현관 △통영근해장어통발공동체 최부석 □한국수산업회 표창(2명) △산등공동체 이한기 △연대공동체 천영택 □수협중앙회장 표창(1명) △염호공동체 이광주 □통영수협조합장 표창(3명) △통영가리비양식공동체 박동환 △중화우럭양식공동체 조석현 △통영양지패류양식공동체 이재열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표창(3명) △사랑연안통발공동체 정갑진 △도동공동체 김순호 △죽도공동체 정병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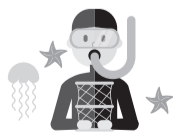
## 자율관리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 자율관리어업 정책 및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

#### 경기도관내 공동체, 예산군 예당내수면공동체 방문교육



자율관리어업 경기도연합회 유재학 회장을 비롯, 회원 34명은 11월 22~23일 충남 예산군 예당내수면공

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 예당내수면공동체 최재인 위원장은 예당공동체의 활동현황 및 성공 요인을 소개하고 주변시설을 안내했다. 또 유재학 경기도연합회장과 한국수산업관계자는 자율관리어업 시책 및 사업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제주관내 공동체, 통영 및 여수 방문해 현장교육



제주관내 공동체 위원장 및 회원 24명은 11월 20~22일 경남 통영이

동성구획어업 및 전남 여수시 안포자율관리공동체를 잇따라 방문해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제주관내 어업인들이 제주와 어업여건이 다른 육지의 대표적인 어선어업 및 마을어업 공동체를 방문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모티브를 제공받는 교육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남 통영관내 공동체, 여수시 안포공동체 방문교육



경남 통영관내 공동체 위원장 및 회원 29명은 11월 13~14일 여수시

안포공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을 받았다. 안포공동체는 지난해 열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마을어업 부문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바 있다. 안포공동체 이희안 위원장은 어장관리에서부터 생산관리, 가공품 개발 등 공동체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자율관리어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통영근해자망공동체, 서산시 중왕공동체 방문교육



경남 통영근해자망공동체 어업인 28명은 10월 25~26일 충남 서산시 중왕공동체를 방문해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서는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함께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왕공동체의 자원 및 어장관리 내용 등이 소개됐다.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가공기술 7건 민간이전

#### 해수부, 수산식품 산업화 통한 활성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11월 4일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기술 7건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가공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업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수산식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수산식품산업화 기술지원센터는 올해 연구개발 사업지원을 통해 △미주, 유럽 등 먼 거리 수출을 위한 '어육소시지 저장성 향상 및 탄력 개선 기술' △매운 맛과 영양을 가미한 '매운맛 구운 굴 통조림 제조기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가정간편식 품장

어볶음 기술' 등을 개발했다.

기술이전을 받은 대일씨에프, 희창물산, 에바다수산 등 7개 기업은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화 작업을 거쳐 연내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육소시지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장기간 운송에도 특유의 탄력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번 기술이전으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어김'은 지난 8월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현지 바이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현재 베트남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준비 중이다.

### 어업인 자율관리어업 발전 맞춤형 교육 실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충남지역 어업인 70명 대상



11월 8일 충남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정책을 비롯, 공동체 소득증대 방안 등 자율관리어업의 효율적인 추진 교육이 실시됐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 지승길)은 11월 8일 충남 지역 어업인 대상으로 '어업인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충남지역 어업인 70여명이 참가했다. 어업인 현장교육은 전국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신(新)수산기술과 주요 해양수산 정책 등 어업인들이 현장에

서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현장맞춤형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발전을 위한 교육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올해 전국 권역별로 300여명의 어업인들에게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 울산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교육' 실시

#### 주전공동체, 당사공동체 회원 등 110명 대상

울산시는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주전공동체와 당사공동체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전공동체와 당사공동체 어선공동체 회원 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발전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우수공동체 성공사례에 대한 자유

로운 토론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 전문강사를 초빙, 연안정화 및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어업인들에게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 강원, 제주어업인 등 120여명 참석, 어업분쟁 해소방안 모색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월 15~16일 경북 포항에서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 어업분쟁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월 15~16일 포항에서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어업분

쟁의 합리적인 해결과 정부-어업인 간 소통을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동해어업조정위원회 및 지자체, 수협조합장, 강원도와 제주도 어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16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대형저인망 조업구역 관련 어업조정 등 지속조정 안전 4건에 대하여 심의를 의결하였고 △동해 붉은대게 근해통발과 제주 근해연승간 어구분쟁 등 신규 심의 안전 2건을 조정 안전건으로 상정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과제로 4건의 안전건에 대해 토의했다.

### 수협, 제주 해안가 대청소... 가파도 공동체 등 참여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월 10일 제주 가파도에서 8번째 '어기(漁起)여차! 제주올레 해안가 대청소'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5월 사단법인 제주올레, 재단법인 환경재단과 맺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협은 회원조합 및 봉사단체들과 함께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제주해안정화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번 대청소까지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약 28만 리터 이상의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모슬포수협, 가파어촌계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2시간가량 가파도 일대(올레길 10-1코스) 4.2km를 걸으며 약 1만 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별기고

# ‘자율관리어업,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어촌전문가들이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해왔으나 자율관리어업이 우리 어촌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동안 수산 관련 공직과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직접 느낀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 공동어장 불법채취 대책 마련 시급

지금 우리 어촌마을의 공동어장은 불법 해루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 팍 흘러 일궈 놓은 수산물을 지키려는 어업인들과 값비싼 전복 등을 노리는 다이버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말, 평일 구분 없이 한 마을어장에 10여명, 많게는 30여명이 몰려와 마을어장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주민들이 군대처럼 불침번을 서는 마을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마을어장에 대한 도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에는 어촌계의 동의 없이 누구든지 마을어장 내에 입수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군인, 해경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안 경계근무시 불법조업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공동체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필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지도자의 선출방법 개선이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어업 공동체는 어촌계장과 공동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직선제 어촌



조용현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  
(경상북도 담당)

계장 선거 후유증으로 고소, 고발사례가 빚어지는 한편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분열되는 경우가 사례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위원장의 임명제 전환과 인수인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어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도자 연령 상한제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원활한 활동 및 활동일지 작성 등을 감안할 때 만 70세까지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 육성사업비 지원방식도 개선돼야

이와 함께 육성사업비 지원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육성사업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

로 육성사업비 지원 여부가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넉넉지 못한 한정된 정부의 육성사업비를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의 당근책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가령 선진공동체 진입이 어려워 자립단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등급 단계를 폐지하여 다른 등급공동체에 지원하여 보다 많은 공동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자율관리어업의 우리 어촌사회의 희망이다. 하지만 지금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그 열기는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 9개 품종 종자 보급한다’

### 수산과학원, 연말까지 신청받아, 내년 3월부터 보급



전남 고흥지역에 설치된 김양식 시설 모습. 수산과학원은 내년 김 품종 종자보급을 위해 11월 22일 김양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내년에 9개의 김 품종이 새롭게 양식현장에 보급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내년 김 9개 품종을 보급하기 앞서 (사)한국김종자생산자연협회와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11월 22일 수산식품품종관리센터에서 '김(신)품종 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과원은 품종보호권이 출원·등록된 김 9개 국유품종의 분양을 원하는 종자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국유품종의 종자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자(국립수산과학원)의 허락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국유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품종별 특징을 담은 '김 품종안내' 브로슈어를 배포하고,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9년에 분양할 품종은 모두 국내 김 양식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방사무늬김으로 업체가 얇고 부드러운 주로 김밥용 김과 수출용 조미김으로 가공되고 있다.

2019년 9개 품종의 김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종자업체는 수과원 누리집에서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를 참고하여 오는 1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과원은 공고 기간 동안 수량을 신청받아 내년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전남도, 고소득 '새조개' 양식기술 개발 나서

### 인공종자 1억마리 5개 어촌계에 보급해 중간 양성



새조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전남도는 오는 2021년 양식 새조개 대량생산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소득 패류인 새조개를 양식을 통해 대량생산하는 기술개발이 전남에서 본격화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량 자연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새조개를 계획 생산하기 위해 양식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조개는 두툼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완전양식이 어려워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생산량 예측이 힘들다. 최근 6년간 새조개 전국 생산량은 2012년 426톤, 2013년 471톤, 2014년 1,910톤, 2015년 81톤, 2016년 293톤, 2017년 1,101톤으로 매년 들쭉날쭉하다.

가격도 50kg 1상자 거래가격이 평균 60만원 선이지만 생산량과 품질에

따라 120만원까지 치솟기도 하고 30만원까지 폭락하기도 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3억 여원을 들여 새조개 인공종자 대량생산과 양식기술 개발에 나선다.

새조개 인공종자 대량생산은 2년 전 성공한 상태로 현재 인공종자 1억 마리를 여수시 관내 신월, 돌산읍 굴전·평사, 화산면 원포·안포 등 어촌계 5 곳에 공급했다.

이들 어촌계는 새조개가 선호하는 먹이생물인 미세조류를 배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약 1cm 크기까지 자라도록 중간양성 단계를 거친다. 전남도는 중간양성 기간 어촌계별로 새조개 어장 환경을 살피고, 대량생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찾아내 2021년부터는 새조개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http://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 3년 연속 입어규모 감축 ... 수산자원 관리방안 논의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여부 등을 조사하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우리 측에서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장시엔리양(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내년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2017년 1540척(-60척), 2018년 1500척(-40척), 2019년 1450척(-50척) 등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하게 됐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

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함으로써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협력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함으로써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에는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6~7월께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양측이 각각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 옹진군 어업인, “일방적 바다모래 채취 허가 반대”

인천 옹진군과 골재업자가 이번 달 공청회를 열고 바다모래채취 강행을 위한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어업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9일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반대 대책위원회, 어업인 단체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은 옹진군청 앞에서 바다모래채취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이번에 지정예정인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9천만 m³의 모래가 채취된 지역이다.



옹진군 어업인 등 300여명은 11월 19일 옹진군청 앞에서 모래채취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첫 선

#### 김영춘 장관, 경남 하동 송어양식장에서 시연회



김영춘 장관을 비롯한 양식업 관계자들이 10월 31일 경남 하동 송어양식장에서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 시연회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첨단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이 첫 선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31일 김영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하동 송어양식장에서 스마트 양식장 운

영기술 시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이 더욱 발전되면 귀어인구 증가와 청년인력 유입으로 어촌의 고령화 및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양식장의 핵심 기술은 △어류의 먹이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육환경(수온, 용존산소, 염분)에 따라 적정량의 사료 공급 △수중 영상을 통해 어류의 크기와 무게 추정 △물속 산소가 부족할 때 용존산소를 자동으로 공급하고 조절하는 등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들 수 있다.

### 공동체 탐방 / 해남 송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40대 이하가 주축인 젊은 공동체 ... 전복양식으로 6차 산업화 시도



송양배 해남 송호공동체 위원장.



송호마을 앞바다에 빼곡히 자리잡은 전복양식장.



크레인을 통해 전복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



전복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 해남 팥밭마을과 인접한 송호마을은 전복양식단지로 유명한 곳이다. 예전에는 김양식을 주로 했던 곳이나 10여년 전부터 몇몇 어업인들이 커다란 통에 전복을 키우는 재래식 방법으로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늘어나자, 마을을 떠났던 젊은 사람들이 찾아들면서 현재 송호공동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로 구성돼 전국에서 가장 젊은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송호마을 앞바다는 섬으로 둘러싸여 태풍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청정갯벌과 조수간만 차이로 인해 전복 먹이인 다시마와 미역을 기르는데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복양식의 대명사인 완도산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타지역 전복

에 비해 비리지 않고 육질이 부드러운 해남갯벌전복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해남팥밭갯벌전복’이라는 브랜드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현재 송호공동체에는 53명의 회원들이 각기 250칸(1칸 2.4mx2.4m)씩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어장관리에서부터 양식기술까지 전복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복양식을 운영하면서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2013년 태풍 블라벤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에는 고수온으로 폐사량이 늘었다.

이에 공동체 회원들은 기존 가구당 300칸으로 운영하던 어장규모를 250칸으로 축소해 어장간격을 넓히는 한편 종전 가두리 칸당 5,000개가 넘는

종패 입식량도 1,500~2,000개로 자율적으로 줄여나갔다. 폐사율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식을 금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통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에는 한 달에 3~4회 굴 껍질 제거를 비롯, 어장 저질정소를 실시해 연간 66ha의 전복양식장 저질개선 노력에 전 회원들이 합심하고 있다.

한편 전복양식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는 전복먹이인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의 안정적인 공급문제이다. 해마다 겨울철에는 미역, 봄부터 여름까지는 다시마를 먹이로 주지만 다시마 채취가 끝나는 9월부터 미역 출하시기 이전까지는 완도지역의 저온시설에 넣어둔 미역줄기 등을 구입

해야 하는데, 종종 수급이 원활치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송호마을은 전복먹이 보관을 위한 자체 냉동냉장 저장시설 마련을 위해 공동체 회원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곳 양식규모를 감안할 때 150평 규모의 저장시설 3~4개가 필요하지만 금년 초 전남도 사업으로 일부 저장시설이 마련된 만큼, 올해 신청한 선진공동체 육성사업비가 지원돼 추가시설이 마련되면 전복먹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호공동체 송양배(51) 위원장은 먹이 저장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마련되면 활전복 판매에 그치지 않고 건전복과 자숙 전복을 만들어 진공 포장해 판매하는 등 전복 6차산업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